

고신 신학의 현장성을 위한 질적연구방법의 적용:  
미래 고신대학교 100년을 향한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시도

이현철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 314
2. 현재의 상황: 현장성의 미흡 그리고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시도 | 315
3. 질적연구방법의 개념과 방법 | 318
  - 3.1. 질적연구의 의미와 목적 | 318
  - 3.2. 질적연구의 방법: 면담(interview)과 관찰(observation)을 중심으로 | 321
  - 3.3. 질적연구의 단계 | 324
4.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 사례 소개 | 326
  - 4.1. 이현철(2013).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327
  - 4.2. 이현철(2015).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328
  - 4.3. 이현철(2015).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 329
5. 나가며 | 330



## Abstract

###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n Praxis of Kosin Theology: Academic Challenge of Dept. Christian Education for Future of Kosin Univ.

Lee, Hyunchul

(Assistant Prof. of Christian Education in Kosin University)

This year is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Kosin university, is also a year to develop a long-term plan for the future, 100th anniversary. In this context, it what discussed and explored about substantiality and concreteness of our research is very timely because it related to applicability of Kosin theology on Korean church and society. As we known, we believe that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are the only word of God and that they are the infallible rule of practice for every area of faith and life, and that we are servants for the glory of God. In particular, we seek to serve church and society through the Reformed theology. This is to assume that our research and academic direction must be not only substantiality but also concreteness, not just abstractness.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mentioned contents, this study presents the effort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Kosin Univ. on research methods that are actually utilized in the research field, an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way of the latest social science research, i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addition, I was introduced the pioneering researches that assist the understanding of the reader in the practical theology area. These examples were clearly shown the applicability and possi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theology area. In conclusion, this study was to expand the discussion associated with research methods of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fields, to suggest the possibility to break the limitation of culture of literature centered on theology researchers and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 Kosin Theology, Kosin Church, Christian Education, Practical Theology,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고신신학, 고신교회,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연구방법, 질적연구

## 1. 들어가며

고신대학교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미래 고신 100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점<sup>1)</sup>에서 고신신학의 현장성 회복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문을 수행하고 있는 신앙공동체요 학문공동체이다. 특별히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개혁을 시도함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우리의 학문적 논의와 추구가 반드시 현장지향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지향적이라는 교회사와 지역사회와 같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에 부합하여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적절하게 답을 주어야 하며, 그 문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기능적으로 도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신학과 학문적 고민은 언제나 현장에 기반 하여 움직여 왔으며, 현장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몸부림쳐 온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신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들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문(고려신학교 설립취지서)에서도 이를 향한 분명한 의식과 열정을 볼 수 있다.

---

1) 2016년 9월 현재까지 고신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사진전, 기념식수, Talk Concert 등의 기념행사들을 의미 있게 수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고신대학교 100주년 특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교 100주년을 향한 청사진과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목사교수로서는 신학과 송영목 교수(준비위원장), 기독교교육과 이현철 교수, 국제문화선교학과 배아론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변화하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연구가 선배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현장 지향적이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론과 현장의 괴리’, ‘낮은 적용성 문제’,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손에 잡혀지는’ 구체적인 연구를 원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교회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개혁시도의 장이 사라지고 있음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신신학의 현장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과의 시도와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방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 연구에서 현장지향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고신신학의 현장성 회복을 위한 연구방법적 논의 장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 2. 현재의 상황: 현장성의 미흡 그리고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시도

신학 영역, 특별히 기독교교육학 및 실천신학 영역은 그 학문적 성격에서 볼 때 현장 중심의 학문이어야 하며, 끊임없이 현장을 지향해야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논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 논의일 때 진정한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에 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현장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 고신의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연구 풍토와 상황을 보면 현장지향적인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학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학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이론 중심의 논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sup>2)</sup>, 이에 대하여 조성국은 기독교교육학의 본래적인 실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초이론지향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이는 구체적으로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이 현장성과 실천성을 지향해야 할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혹은 연구과정 자체가 연구 현장의 구성원들과 별개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문헌연구로서만 수행되어 해당 연구현상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연구동향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수행한 연구자들의 논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기독교교육학과 그 관련 실천 영역의 학문들은 현장에 깊이 뿌리박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현장과 그것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는 본래적으로 가진 해당 학문들의 실천적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전술한 상황이 학계에 대한 현장성의 부재와 괴리와 같은 비판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즉,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용이 요청되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2) 박경순. 기독교교육논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27. 1-24(2011).

3) 조성국. 현장 지향적 기독교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이론 분야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14. 19-46(2007).

현장성이 짙은 질적연구의 적용이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는 연구방법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 일변도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의 연구방법만을 위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방법과 기술을 훈련받으며 연구의 현장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 최근 기독교교육과 졸업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의 성격이 현장 지향적인 주제와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된 학위논문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질적연구를 활용한 논문들의 경우 더욱 현장 지향적이며, 사역 현장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적용성과 문제해결 수준은 논문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기독교교육과의 박사학위논문 중 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석사학위논문 제외). 2013년 전기에서 2015년 후기까지 총 16명의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는 7편으로 총 43.75%의 논문이다. 그리고 해당 7편의 논문 중 4편이 질적연구방법이 적용된 연구물들이다.

표 1. 기독교교육과의 최근 3년간 박사학위논문 중 연구방법 적용 사례

연구자	논문제목	졸업연도	연구방법
윤**	성막을 통한 전인치유프로그램이 기독교인의 심리적 안녕과 영적안녕에 미치는 효과	2013(전기)	양적연구
남**	초등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통합연구	2014(전기)	양적 및 질적연구
박**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2014(전기)	질적연구
김**	선교지 교회학교에서의 CTM 멀티미디어 콘텐츠 적용사례 연구	2015(전기)	양적연구
이**	교회학교 교사교육 비교분석 및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	2015(전기)	양적연구
김**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신앙 성숙도에 관한 통합 연구	2015(전기)	양적 및 질적연구
옥**	도박중독자들의 상담 참여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15(후기)	질적연구

### 3. 질적연구방법의 개념과 방법4)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 연구에서의 현장지향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의 개념, 방법, 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 3.1. 질적연구의 의미와 목적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연구방법론은 객관성을 강조하는 양적연구방법과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연구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양적연구의 경우,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유일하게 과학적이라 주장하며 사회현상을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야만 과학으로서 정당성을 보장받는다든가 입장이다. 이는 만물의 실체를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점을 취하며, 과학의 목적은 그러한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본다.<sup>5)</sup> 이에 비해 질적연구의 경우 전술한 패러다임의 대안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자연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일상생활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며, 수량화된 현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숫자가 아닌 언어, 단어, 의미 등을 강조한다. 질적연구방법의 경우 이러한 패러다임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문제가 되는 현상들과 의미를 기술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현상의 주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위하고

4) 본 절의 내용은 2013년(Spring) 『교회와 교육』에 게재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5) Frenkel, J. R. & Wallen, N. E..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7th ed.). NY: McGraw-Hill(2009).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sup>6)</sup> 질적연구에 집중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적연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의미와 이해이다. 질적연구에서의 의미와 이해의 개념은 질적연구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연구대상(지역사회)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사회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재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 초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의미란 특정한 조건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발달시킨 문화적/역사적/인간관계적 생활양식으로서 내부자/참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규범, 문화, 신념, 상황정의, 생활세계 또는 세계관 등을 포괄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상적 세계의 기술이다. 일상적 세계의 기술이란 질적연구의 핵심적인 과업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일상적 세계란 연구현장의 주체들/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상적 세계의 기술은 그들의 삶을 밀도 있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의미와 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단적인 작업 과정이면서 그 과정 자체가 해석과 분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다.

---

6) Denzin, N. & Lincoln, Y.(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1994).

7) 질적연구방법 및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개념 및 내용들의 경우 김영천의 『질적연구방법론 I(개정판)(2012)』과 John W. Creswell의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007)』를 참고하기 바란다(Creswell의 작품은 조홍식·정선욱·김진숙(2010) 번역하여 소개하였음). Creswell, J. W.(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조홍식·정선욱·김진숙 역, 2007년 원출판/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서울: 학지사.

셋째, 특정한 사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양적연구의 대규모 사례 대신에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연구 관심을 가짐으로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양적연구가 대단위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데 비하여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례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평가이다. 질적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참된 평가를 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특정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등은 매우 질적인 개념으로서 표준화된 테스트나 질문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상적인 범주들과는 다른 개별적인 의미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 실행 자체에 대한 평가도 질적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개발된 프로그램이 과연 의도된 대로 잘 실행되었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양적 분석에 대한 추가적 해석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질적 연구는 발견과 이론화의 목적을 가진다. 여기에서 발견이란 인간/사회현상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은/설명되지 않은/찾아내지 못하였던 어떤 새로운 사실들 또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론화는 기존의 방식이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던/설명되지 못하였던 현상을 새로이 이해시켜주거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발견과 이론화의 목적은 전술한 질적연구의 목적을 추구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줌으로서 질적연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관찰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연구대상(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찰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생활사(life history), 전기(biography), 구술사(oral history), 핵심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문화기술지적 면담(ethnographic interview) 등의 용어들이 면담과 관련하여 유사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 2) 관찰(observation)

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참여자의 세계(혹은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찰하여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질적연구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특히, 참여관찰은 인류학과 사회학의 주요한 연구방법으로서 발달되었으며, 연구자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sup> 첫째, 비참여관찰이다. 연구참여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없이 다른 형태의 자료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텔레비전, 신문 또는 소설이나 일기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연구한다. 둘째, 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이다.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만남이 완전히 배제된 형태의 관찰을 말한다. 실험실의 일방향 거울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기록되는 실험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다. 연구자는 실험실에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실험실 안의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참여자와의 접촉이 없이 관찰한다.

1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2006).

외부자적 시각에서 참여관찰을 하는 것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다르게 행동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셋째, 참여관찰이다. 연구의 목적을 연구참여자에게 이야기하고서 참여관찰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 많이 머무르지 않으며 제한적 형태의 관찰을 시도한다. 연구현장에 한번 정도의 관찰 또는 면담을 하는 형태의 관찰을 말한다. 만남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다. 아울러 연구참여자와 라포르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거의 없다. 내부자의 관점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넷째, 관찰자로서 참여관찰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현장에 들어간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참여자 또는 제보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의 목적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방법과는 다르다. 연구장소에 있지만 연구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중도적인 입장을 취함). 처음에는 연구자의 정체성이 강하게 시작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참여자의 역할이나 정체성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이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이나 연구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참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은폐하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가 신분을 속이는 경우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관찰일지를 작성하기가 어렵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세계의 숨겨진 단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연구를 끝마치지 못하고 연구장소로부터 추방된다.

### 3.3. 질적연구의 단계

앞서 살펴본 면담과 관찰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 및 조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해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이해도를 위하여 직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연구 과정에서는 순환적이며 나선형적인 구조를 취함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면담대상 및 관찰대상자를 섭외하고, 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질문 및 관찰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때에 연구주제의 문화와 맥락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 혹은 기관이 섭외되어야 하며, 질문과 관찰 목록을 꼼꼼히 구성해두어야 한다.

2단계 현장들어가기는 섭외된 주요 인물 및 기관과 직접 면담과 관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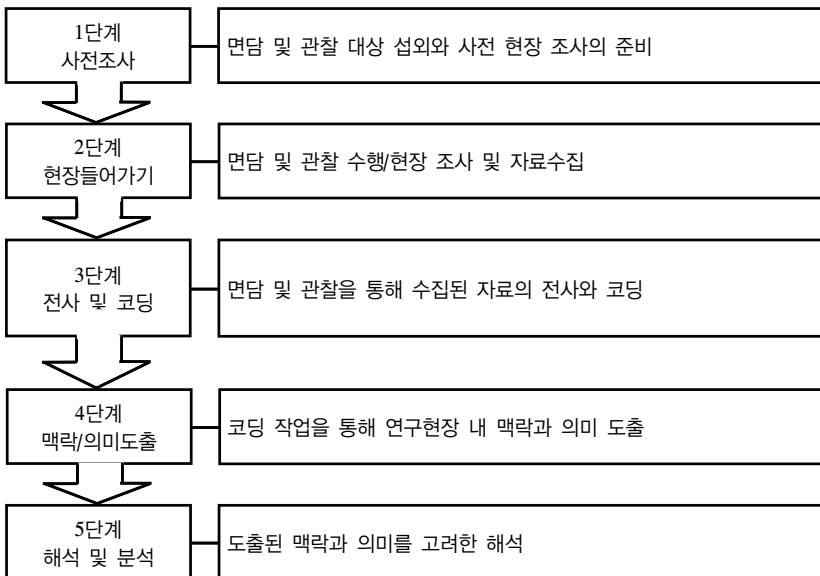


그림 1. 질적연구의 일반적인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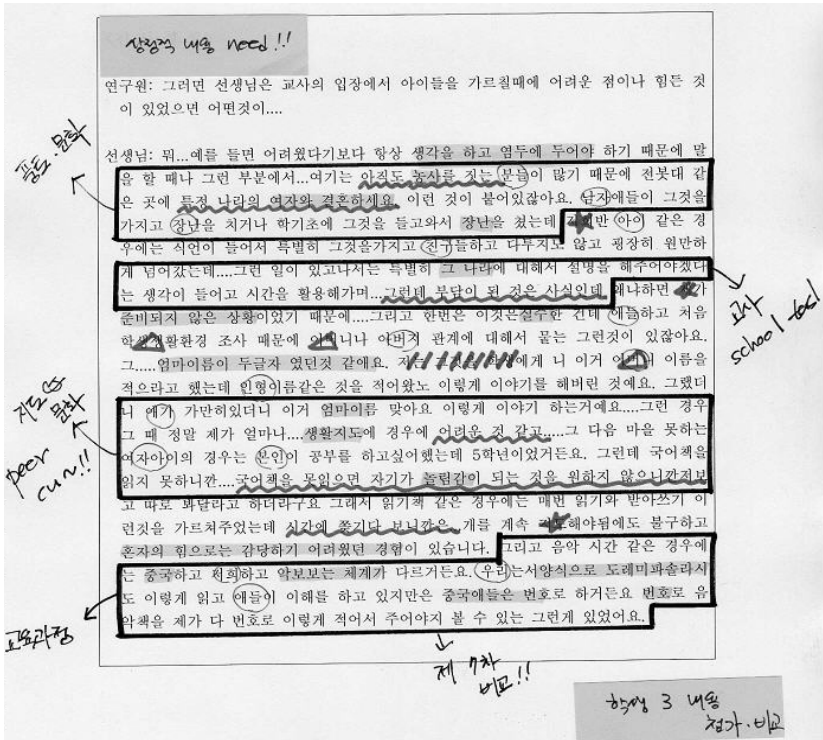


그림 2. 전사 및 자료코딩 과정의 예시

자료출처: 이현철 외(2013)

수행하여 그곳으로부터 자료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면담과 관찰이 수행되어야 하며, 자료의 포화점에 이를 때까지 수행되어야 한다.

3단계 전사 및 자료코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면담자료와 관찰자료들을 전사 혹은 정리하고, 전사된 자료들을 특정한 코딩 방법들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코딩작업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오영범 · 이현철 · 정상원의 책을 참고하라.12)

12) 오영범 · 이현철 · 정상원, 『질적자료분석』, 서울: 아카데미프레스(2016).

4단계 맥락/의미도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코딩작업을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맥락과 의미를 도출하여 특정한 주제들을 뽑아내는 단계이다.

5단계 해석 및 분석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도출한 맥락/의미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분류/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전략과 접근들의 경우 단선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며 나선형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이는 연구의 현장성 회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 사례 소개

전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교육과의 교수로서 필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 몇몇 선구적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신학 관련 주요 학회에 논문으로 출판 되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특히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에 대한 연구’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정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

이러한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시도와 노력으로서도 볼 수 있는데 필자는 기독교교육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방법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과로부터 실천신학 및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연구 방법적 분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학원생들의 지도를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 역시 학과의 학문적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학문적 수월성을 달성하는데 미약하나마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시도와 노력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 4.1. 이현철(2013).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개혁논총』 28. 247-279.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담, 참여관찰의 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교사들의 내러티브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그들의 문제 및 딜레마와 관련되어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회학교 및 교회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 파악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한국 교회학교의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5역.....떠나고 싶다”: 소수에 집중된 교회 봉사, 둘째, “저는 부족한 교사.....”: 교사로서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자신감 결여, 셋째, “지금 목사님과 예전 목사님”: 교역자의

---

13) 이는 그동안 철저한 기독교대학으로서 고신대학교 내 기독교교육과의 독특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던 1세대와 2세대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선배 교수님들의 학문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교육과의 학문적 방향이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초이론작업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100년을 바라보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학문 후속세대의 과업은 그러한 견고한 토대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의 현장까지 담아내는 적용성 높은 실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함이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초이론작업을 수행하여 견고한 학문적 틀을 형성시켜주시는 기독교교육과 선배 교수님들과 신학대학 모든 선배 교수님들의 학문적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삼위하나님께서서 그분들을 인도하셨듯이 고신의 학문후속세대들 역시도 든든히 인도하실 줄 믿는다.

잡은 변동, 넷째, “우리 안의 *Configurer*”: 부서 구성원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팀워크 붕괴, 다섯째,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의 말 한마디”: 지원의 부재, 여섯째, “장로님, 집사님 가정이 더해요”: 교회와 가정의 불일치, 일곱째, “말씀 가르치기가 없습니다.”: 말씀 및 교리중심 교육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가 결국은 교사 자신의 개인수준, 교사가 속한 교회의 수준, 교사가 봉사하는 학생들이 속한 가정 수준의 맥락을 통해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4.2. 이현철(2015).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개혁논총』 33. 259-295.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의 교회 진입의 장애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에는 교회의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구성원들이 한국 교회에 진입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장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이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성장 둔화라는 문제 앞에 한국 교회의 성장 전략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목회자, 부교역자, 장년성도,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비성도) 총 30명(남: 19명, 여: 11명) 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한지 2년 미만의 새롭게 교회로 등록하여 정착한 성도들(새신자)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켜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며 진입할 당시의 상황들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관련 인물들이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맥락 속에서 진입장벽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학교의 질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교회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의 경우 첫째, 양질의 신앙교육 부재와 교회의 세속화, 둘째,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윤리·도덕적 문제, 셋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어색함, 넷째,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교회 내의 끼리끼리 문화, 다섯째, 공격적인 전도방식이 주는 강한 이미지, 여섯째, 새신자부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의 부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4.3 이현철(2015).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성경과 신학』 75. 349-377.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의 상황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부재한 신학계의 학문적 상황을 극복하고, 부교역자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인 접근보다 실제적으로 그들과 관련된 현상과 의미를 탐색하는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의 삶과 문화에 대하여 탐색하였으며, 해당과정에서 심층면담과 심층면담의 의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여관찰 및 내용분석이 부수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교회현장과 연구참여자들을 통해서 도출된 질적자료의 경우 질적자료분석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인 NVivo를 통해 코딩분석이 수행되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내 부교역자의 삶과 문화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의미와 문화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목회자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교역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학술적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부교역자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5.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고신신학의 현장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과의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방법적 패러다임 변화와 시도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 연구에서의 현장지향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신학영역 내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된 몇몇 선구적인 연구물들을 사례를 소개하였다.

고신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실천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을 주제로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이 속한 내부적인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층적인 분석과 현장지향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 이해를 위한 치밀한 질적 조사가 수행되어져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좀 더 정련된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제안해본다.

첫째, 신학대학의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방법 수업의 개설과 지도가 수행되어야 한다. 학문후속세대들을 위한 본교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수업 개설과 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과정 내 필수적으로 연구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개설되어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학위 과정에서부터 정련된 수준의 연구방법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향한 지도에 있어서도 지도교수의 학문적 성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신학 내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풍토의 탈피를 추구해야 한다. 신학연구 영역 중 실천신학의 범주에 포함된 연구 주제들의 경우 단순 문헌연

구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교회와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도출되는 사항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법이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실천신학 영역의 현장성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교회와 사역 현장으로부터 환영받는 연구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 차원에서 교회와 사역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 한다. 이론과 현장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 및 교단의 연구 프로젝트에 현장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분석을 검토하는 등 그들의 관점과 목소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그리고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넷째, 교수들의 연구방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국내·외 리딩그룹의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와 학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재학생들의 학습역량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연구방법적인 발전과 변화에 교수들의 역량이 뒤처지지 않도록 최신의 연구방법들을 소개하고 워크숍을 개설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수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교의 관심과 접근이 실제적으로 요청된다.